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1 5 민 사 부

결 정

사 건	2015카합10012 공사중지가처분
채 권 자	A
채 무 자	1. B공단 2. 주식회사 C

주 문

1.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.

신 청 취 지

채무자들은 부산-울산 복선전철 제6공구 공사 중 온곡터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
이 유

1. 소명사실

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.

가. 채무자 B공단은 동해남부선 부산-울산 복선전철화건설사업의 시행사이고, 채무자 주식회사 C는 위 사업 중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시공사이다. 채권자는 위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'○○애견훈련학교'(이하 '이 사건 훈련 학교'라 한다)라는 상호로 동물 훈련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.

나. 채무자들은 2014. 5. 초순경부터 이 사건 훈련학교로부터 485m 떨어진 지점에서 부산-울산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 건설공사와 관련한 온콕터널 굴착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시작하였다.

다.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B공단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될 이 사건 훈련학교 부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

2. 채권자의 주장

이 사건 공사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훈련학교의 말이 다치고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. 채무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이 사건 훈련학교의 개들이 폐사하는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진동 및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,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, 진동 및 소음의 발생,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. 다만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가

처분으로 구하는 경우, 그러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으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,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,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.

나. 피보전권리

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이후 이 사건 훈련학교의 개가 일부 죽거나, 모견 출산 당시 사산되어 태어난 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. 그러나 위 소명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훈련학교의 개 50마리가 폐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상당 수의 개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.

①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훈련학교의 이격거리가 485m인데다 위 두 지점 사이에 야산이 위치해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훈련학교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지형조건이다.

② 또한 채무자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2014. 12. 30.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험발파를 시행하였는데, 당시 채무자들이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 의하면, 이 사건 훈련학교의 진동과 소음은 계측기 최소측정단위 미만의 미소진동 및 미소소음으로 측정되었다.

③ 이 사건 훈련학교 부지 가까이에 부산-울산간의 동해남부선 단선 선로가 위치

하고 있어 평소에도 이 사건 훈련학교는 소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④ 채권자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개 피해의 수인한도가 소음의 경우 60dB, 진동의 경우 57dB인데, 이 사건 공사장 주변의 소음정도는 76, 77dB로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공사현장 주변에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휴대폰 기기를 이용하여 소음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한 주장에 불과하여, 이 사건 훈련학교에서 측정되는 소음 및 진동의 정도에 대한 소명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.

다. 보전의 필요성

위 소명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

① 채권자의 이 사건 훈련학교 부지가 위 사업 부지로 편입될 예정에 있고, 이 사건 훈련학교에서 생활하는 개들의 생명과 채권자의 재산권이 위 장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채권자가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훈련학교를 이전하는 것이다.

② 이 사건 사업 및 공사가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학교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, 이는 보상범위와 관련된 문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B공단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. 그리고 채권자가 이 사건 훈련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.

이와 같은 보상협의 과정에서의 채권자의 태도 및 채권자의 이전을 위한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.

③ 채권자는 보상협의를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얼마든지 보상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점, 채무자들이 보상협의를 소극적이어서 상당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, 이 사건 훈련학교 수용에 따른 절차는 결국 관련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 중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이 사건 사업 및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사로서 이를 중지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보상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,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공사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

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5. 4. 8.

재 판 장 판 사 김 문 관

 판 사 민 희 진

 판 사 진 정 화